Gyeongsangnamdo Women & Family Foundation
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

경남, 외국인 주민에 대한 사회적 포용성 수준은?

이 혜 림 연구위원

Vol. 53
2026. 04

1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 어떻게 생각할까?

- 외국인을 우리나라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동의 정도를 11점 척도(0: 전혀 동의하지 않음 ~ 10: 매우 동의함)로 측정한 결과, 전국 평균은 5.47점으로 비교적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남
- 경남은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동의 수준이 5.72점으로 전국 평균보다 0.25점 높음

(단위 : 점, n=8,305명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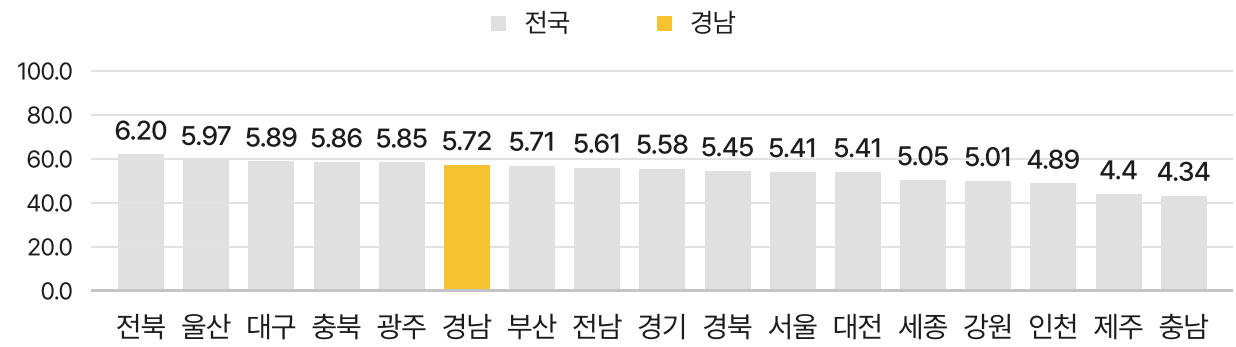


그림1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생각

자료 : 한국행정연구원(2025) 「사회통합실태조사」 원자료 분석

- 성별에 따라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생각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전북임. 전북은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해 가장 동의 정도가 높으나, 성별에 따른 생각 차이가 가장 컸는데(-0.27), 여성이 남성보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
- 경남은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성별 생각 차이가 –0.06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

(단위 : 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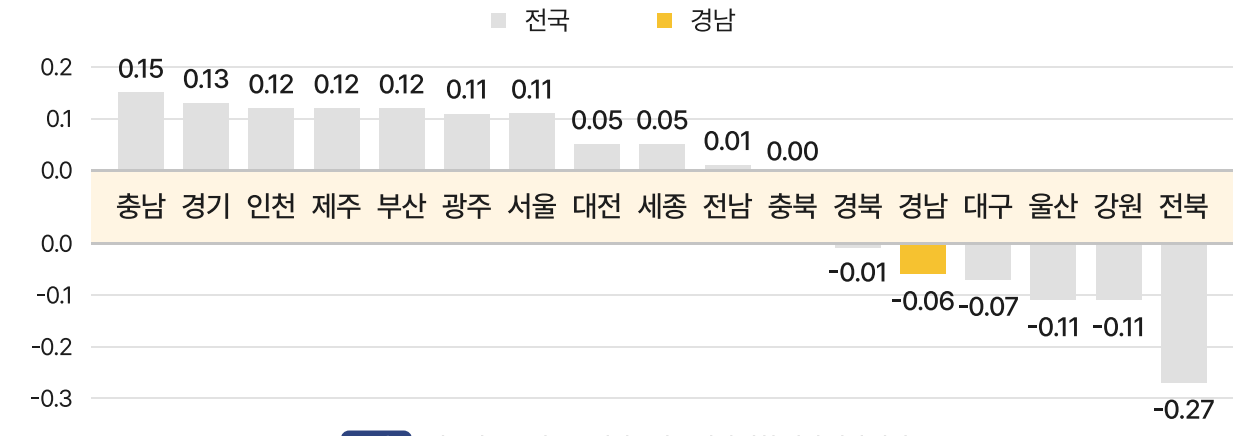


그림2 외국인을 국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관한 성별 인식 차이

자료 : 한국행정연구원(2025) 「사회통합실태조사」 원자료 분석
주 : 점수=여성-남성

2 외국인 이민자/노동자를 어느 정도 관계까지 받아들일 수 있나?

- 전국적으로 외국인 이민자/노동자와 사회적 관계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, 사적 관계의 영역에서는 거의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. 사회적 관계에서는 직장 동료(37.1%), 이웃(28.0%), 절친한 친구(23.1%)의 순으로 나타남
- 경남은 외국인 이민자/노동자와 관계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은 6.6%로 전국 평균보다 2.3% 낮음.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의 범위도 이웃(39.3%), 직장 동료(33.8%), 절친한 친구(18.6%), 배우자(1.8%)의 순으로 사적 영역에서 거리가 먼 순서로 나타남
- 어떤 관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자는 전국적으로는 8.9%, 경남은 6.6%로 나타남

(단위 : %, n=8,305, 경남 n=56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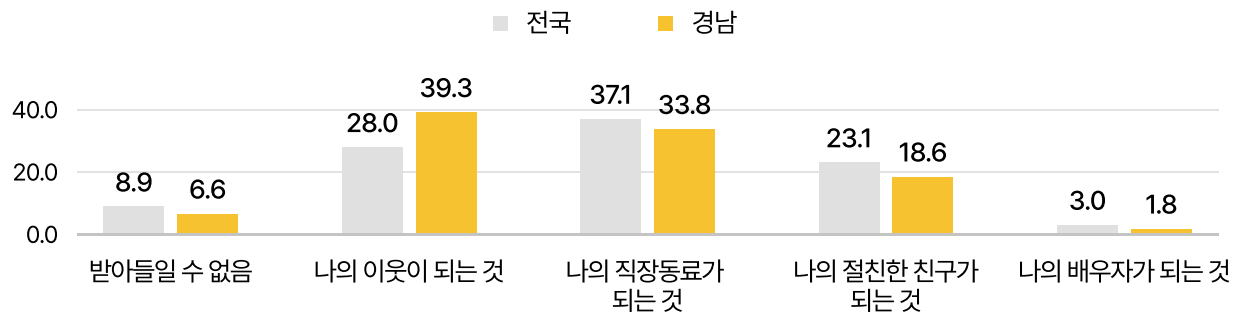


그림3 외국인 이민자/노동자에 대해 인식하는 사회적 거리감

자료 : 한국행정연구원(2025) 「사회통합실태조사」 원자료 분석

- 여성은 전국 평균적으로 외국인 이민자/노동자와 직장 동료(1.64%p) 관계는 남성보다 수용 수준이 높으나, 배우자(-0.05%p), 이웃(-0.23%p), 절친한 친구(-1.32%p) 관계는 수용 수준이 낮음
- 경남 여성은 외국인 이민자/노동자와 직장 동료(2.28%p), 배우자(2.21%p) 관계는 남성보다 수용 수준이 높으나, 이웃(-0.74%p), 절친한 친구(-2.19%p) 관계는 수용 수준이 낮음
- 어떤 관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인식은 전국적으로는 성별 차이가 미미하나, 경남은 남성(7.4%)이 여성(5.8%)보다 이와 같은 인식을 더 많이 가진 것으로 나타남

(단위 : %, n=8,305, 경남 n=56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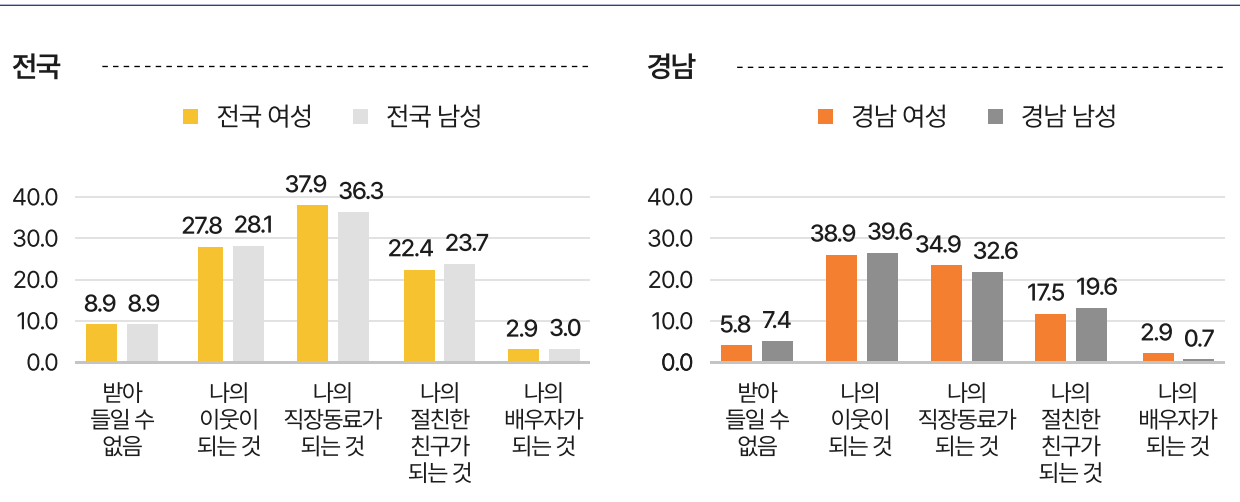


그림4 외국인 이민자/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 성별 차이

자료 : 한국행정연구원(2025) 「사회통합실태조사」 원자료 분석

본 인포그래픽스의 저작권은 경상남도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.
www.gnwff.or.kr